

12-31 (통권 제 502호)

2012. 8. 2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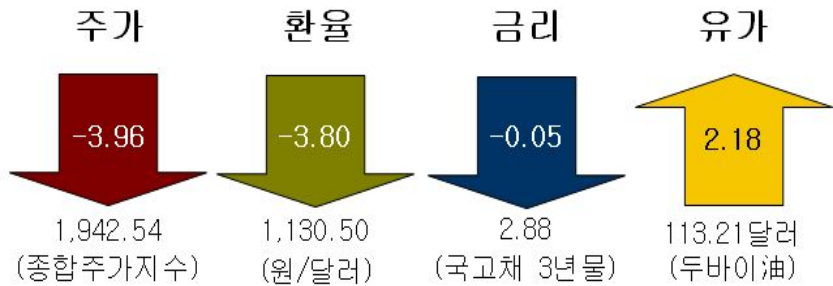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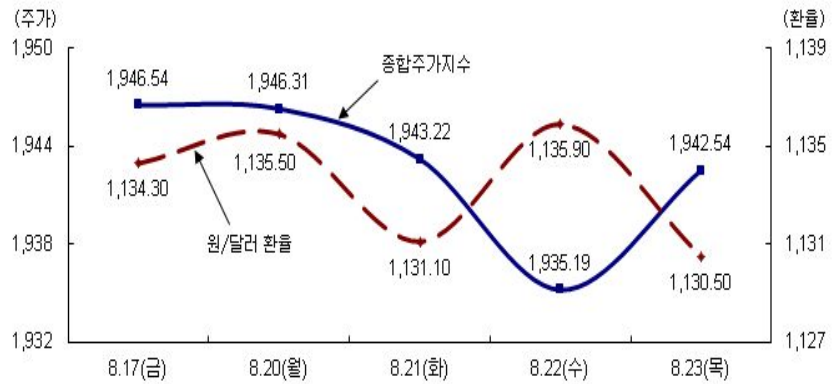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 40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크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7~8.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김 동 열 수석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 40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크다

■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지속 증가

국내 가구의 소득은 1990년 대비 2011년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늘어났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8.3%에서 12.6%로 늘어나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교육 빈곤층의 정의와 규모 추정

교육 빈곤층은 “부채가 있고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로 정의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기준으로 ①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중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②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평균보다 많고 ③이자비용이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④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2011년 현재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 빈곤층은 82.4만 가구, 가구원 수는 305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32.6만 가구의 13.0%에 달한다.

■ 교육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

우선 교육비 지출에 있어 첫째, 교육 빈곤층은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교육비는 소비지출의 18.1%인데 교육 빈곤층은 소비지출의 28.5%를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다. 둘째, 중·고등학생을 둔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 이들은 전체 교육비의 85.6%를 사교육에 지출한다.

지출과 소비와 관련된 특성을 보면, 첫째, 교육 빈곤층은 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아 소득의 22%인 월평균 68.5만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가계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대출 상환 등의 기타지출도 소득의 66%에 달한다. 둘째,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부분의 소비는 대부분 평균이하로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빈곤층의 가구특성을 종합해 보면, “대졸 이상, 40대,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가 주류이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26.1만 가구(102.9 만명)로 전체 교육 빈곤층의 31.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소득 수준별로는 교육 빈곤층의 대부분은 중산층으로 전체의 73.3%에 해당하는 60.5만 가구에 달한다. 둘째,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교육 빈곤층이 50.3%, 50대도 23.5%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셋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0.5%인 49.1만 가구이며,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전체 대졸 가구주의 12.2%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소비여력이 낮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교육 빈곤층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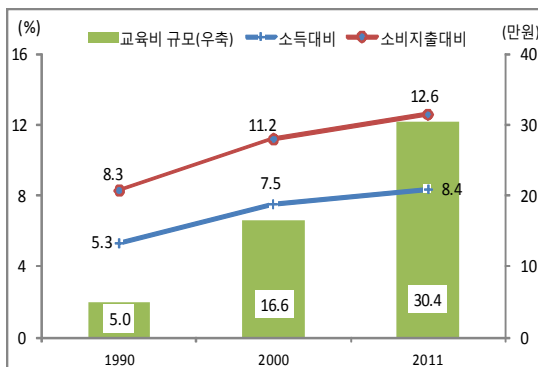
■ 시사점

국내 가구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과정의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직업 개발과정을 활성화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경력개발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先취업, 後진학’ 체계를 조기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

1.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지속 증가

-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 국내 가구의 명목기준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20년 동안 6배 증가
 -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94만원에서 2011년 389.4만원으로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는 동기간 5만원에서 30.4만원으로 6배 증가
 - 교육비가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남
 -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00년 7.5%, 2011년 7.8%로 늘어났고,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3%에서 2000년 11.2%, 2011년 12.6%로 늘어남
 - 개별 가구의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교육 관련 전체 지출 가운데 민간 부담 비율은 GDP의 2.8%로서 OECD 평균인 0.9%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2011년 20.1조원으로 GDP의 1.9%¹⁾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월평균 지출 규모, 참여율 등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섬
 - 특히, 학력중시 풍조 하에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들조차도 자녀 교육에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생활이 빈곤해 지는 가구들이 늘고 있음

<교육비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8)>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OECD 평균
정부 부담	4.7	5.1	3.3	5.5	5.0
민간 부담	2.8	2.1	1.7	0.5	0.9
계	7.6	7.2	4.9	6.0	5.9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1)'.
 주: 민간부담은 학교 교육에 있어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사교육비는 제외.

1) 통계청,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2년 2월.

2. 교육 빈곤층의 정의와 규모 추정

- (정의) 교육 빈곤층²⁾은 “부채가 있고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뜻함
 -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교육 빈곤층으로 정의³⁾
 -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도시 2인 이상 가구) 중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 평균 교육비는 전체 가구(도시 2인 이상 가구) 중에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추정 방법)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
 - 교육 빈곤층은 아래 4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
 - ①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면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②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평균보다 높고 ③ 이자비용이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④실제로 가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로 정의

<교육 빈곤층의 정의 및 기준>

구분		교육 빈곤층
정의		부채가 있고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 소비와 저축 여력이 낮아져 빈곤하게 사는 가구
4가지 기준	교육비 지출 유무	-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교육비 지출 수준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보다 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구
기준	부채 유무	-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 또는 기타지출 중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이 있는 가구 (즉, 부채가 있는 가구)
	가계 수지	- 가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항목 설명에 따르면, ‘이자비용’은 주택대출이자, 기타이자에 대한 지출이며,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부동산 대출 상환 또는 전세금 반환 등에 사용하는 지출임.

2) 교육 빈곤층은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나 하우스푸어(House poor, 유주택 빈곤층)를 참고하여 만든 용어
 3)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교육 빈곤층’을 ‘에듀 푸어’(edu poor)로 부르고 있으며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매경이코노미 ‘나는 푸어다’, 2011년 12월 14일자)

○ (추정 규모) 2011년 기준, 교육 빈곤층은 82.4만 가구이며, 가구원은 305.0만 명에 달함

- 2011년 기준 도시 2인 이상 가구 중 자녀 교육비에 평균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288.7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1,107.4만 명임

· 도시에 2인 이상 거주하는 총 1,108.9만 가구 중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632.6만 가구**임

·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632.6만 가구 중 **자녀 교육비를 평균 이상(2011년 기준, 소비지출의 18.1%**)**으로 지출하는 가구는 **45.6%인 288.7만 가구**임

* 자녀교육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육에서 정규교육, 학원 및 보습비용(성인미포함), 기타교육 중 평생교육원을 제외하여 계산

** 2011년 기준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였고, 이 중 성인 교육비를 제외한 자녀 교육비 비중은 18.1%임

- 자녀 교육비를 평균 이상 지출하는 가구 중 부채관련 지출이 있고, 적자 상태인 교육 빈곤층은 82.4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305만 명에 달함

· 교육 빈곤층 82.4만 가구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13%, 자녀 교육비를 평균 이상 지출하는 가구 중에는 28.5%에 해당됨

· 가구원 기준으로는 총 305.0만명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원(2,387.8만 명) 대비 12.8%, 자녀 교육비를 평균 이상 지출하는 가구 중에서는 27.5%에 달함

<교육 빈곤층의 규모 추정>

(단위 : 만 가구, 만 명 %)

구분	전체 가구	자녀 교육비 지출 가구	자녀 교육비 평균 이상 지출 가구	교육 빈곤층
가구 수	1,108.9	632.6 (100.0)	288.7 (45.6)	82.4 (13.0)
가구원 수	3,629.8	2,387.8 (100.0)	1,107.4 (46.4)	305.0 (12.8)

자료 : 통계청 '2011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체 추산.

주 1)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로서 가계동향조사의 교육 지출항목 중 성인학원비와 평생교육원 비용을 제외한 수치임

2) 도시 2인 이상 가구이며, 괄호 안은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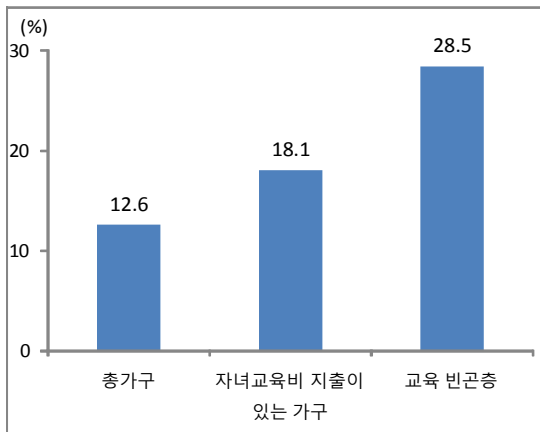
3. 교육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

1) 교육비 특성

○ (교육비 부담 정도) 교육 빈곤층은 평균보다 50% 이상의 교육비를 더 지출

- 교육 빈곤층은 자녀 교육비로 평균보다 50% 이상을 더 사용
 -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소비지출 대비 평균 18.1%를 교육비에 사용하는 반면, 교육 빈곤층은 28.5%를 자녀 교육에 사용
- 특히, 교육 빈곤층의 35%는 소비지출의 3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
 - 2011년 기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약 54.4%는 교육비로 평균인 소비지출의 18.1% 미만을 사용. 반면, 교육 빈곤층의 35%는 소비지출의 30%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

<가구특성별 교육비 부담>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1)도시 2인 이상 가구, 2011년 기준.
 2)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임.

<교육비 지출 비중별 가구 분포>

교육비 지출 비중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	교육 빈곤층 (%)
50%이상	0.5	1.2
40%이상	2.3	7.4
30%이상	10.2	26.4
20%이상	26.8	52.1
20%이하	60.2	12.9
18.1%미만	54.4	.
합계	100	100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1)도시 2인 이상 가구, 2011년 기준.
 2)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임.

○ (사교육비 부담) 교육 빈곤층 중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가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임

- 대학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지만,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높았음
 - 교육 빈곤층 중 대학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가 월평균 88.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81.1만원, 유치원~초등학생은 84.8만원으로 조사됨

- 한편, 중~고등학교, 유치원~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69.5만원, 50.8만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85.6%, 59.8%를 차지하며 정규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부담이 높았음

<교육과정별 정규/사교육비 규모와 비중>

(단위: 만원,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교육 빈곤층		
	정규교육	사교육	합계	정규교육	사교육	합계
유치원 ~ 초등학교	21.4 (45.5)	25.6 (54.5)	47.0 (100.0)	34.0 (40.0)	50.8 (59.8)	84.8 (100.0)
중학교~ 고등학교	9.9 (17.0)	48.5 (83.0)	58.4 (100.0)	11.7 (14.4)	69.5 (85.6)	81.1 (100.0)
대학 이상	52.7 (90.2)	5.7 (9.8)	58.4 (100.0)	80.8 (91.4)	7.7 (8.6)	88.5 (100.0)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1) 복수 교육과정 즉,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함께 있는 가구 등은 과정별 교육비 부담을 구분하기 어려워 제외함.

2) 월평균 교육비 지출 기준임.

3) ()내는 교육과정별 전체 교육비 대비 정규교육과 사교육비의 비중임.

2) 지출 및 소비 구조의 특성

○ (가계 수지) 교육 빈곤층들은 소득 보다 가계지출이 더 커 소득의 22%에 달하는 적자 상태인데, 가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대출 상환 등의 기타 지출도 소득의 66%에 달함

- 교육 빈곤층의 소득 수준은 평균 보다 낮는데 소비지출의 28.5%를 교육비로 지출함으로써 소득의 22%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433.4만원을 벌어서 366.8만원을 지출하여 66.7만원의 흑자를 기록. 평균 자녀 교육비로는 소비지출의 18.1%에 해당하는 51.2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반면, 교육 빈곤층은 평균적으로 313만원을 벌어서 381.5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소득의 22%에 달하는 68.5만원의 적자를 기록. 자녀 교육비로는 소비지출의 28.5%인 86.8만원을 사용

- 교육 빈곤층은 주택대출이자, 부동산대출상환 또는 전세금 반환 등 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 상환의 부담을 함께 안고 있음에도 교육비를 평균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구의 소비 여력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 빈곤층은 이자비용으로 평균 15.2만원을 지출하여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평균인 12.7만원보다 높음
- 아울러, 교육 빈곤층은 적자 상태에서 가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대출상환 등의 기타지출을 위해서도 평균 208.5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소득 및 지출 구조>

(단위: 만원)

	소득	가계 지출	가계지출				기타 지출		흑자 규모
			소비 지출	교육	비소비 지출	이자 비용	기타 지출	부채 감소	
전체가구	389.4	313.9	240.4	29.2	73.5	11.7	199.2	105.8	75.4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A)	433.4	366.8	283.0	51.2	83.8	12.7	233.0	128.9	66.7
교육 빈곤층(B)	313.0	381.5	304.4	86.8	77.1	15.2	208.5	108.6	-68.5
격차(B-A)	-120.4	14.7	21.4	35.6	-6.7	2.5	-24.5	-20.3	-135.2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 주1) 2011년 기준이며,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이며, 흑자규모는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수치임
- 2) 기타지출은 저축, 부동산 구입 등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과 부동산대출상환 등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및 자산이전으로 구성됨.

○ (소비 구조) 교육 빈곤층은 교육을 제외한 의식주 등 다른 부문의 소비는 모두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있음

- 교육 빈곤층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의식주, 교통, 보건 등 대부분의 소비 지출은 줄여 평균보다 모두 작게 지출
- 교육 빈곤층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평균인 18.1%에 비해 10.4%p 높음
- 반면, 식료품, 의류, 주거 등에 사용하는 의식주에 대한 지출은 29.4%로 평균인 32.8%보다 3.4%p 적게 사용
- 또한, 보건, 교통, 통신,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을 합한 지출도 평균보다 7.0%p 지출 비중이 낮게 나타나 교육비 이외의 모든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교육과 관련이 깊은 교재비 등이 포함된 오락·문화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음
- 오락·문화 부문에는 학습교재, 참고서, 독서실 이용의 비용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감소폭이 -0.6%p 낮았음

<소비 항목별 지출 비중>

(단위:%, %p)

	의식주	교육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음식 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A)	32.8	18.1	5.3	10.9	5.7	5.6	12.4	8.7
교육 빈곤층 (B)	29.4	28.5	4.8	9.4	5.5	5.0	11.0	5.9
격차(B-A)	-3.4	10.4	-0.5	-1.5	-0.2	-0.6	-1.4	-2.8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1)2011년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이며, 소비지출 중 항목별 비중임.

2)의식주에는 가계동향의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를 포함함.

3)교육비는 자녀 교육비이며, 성인학원비와 평생교육원비는 제외.

3) 가구 특성

○ (종합) “대졸 이상 학력의 40대 중산층 가구”가 교육 빈곤층의 주류이며, 교육 빈곤층 전체의 31.7%인 26.1만 가구(102.9만 명)에 해당함

- 교육 빈곤층의 주류는 대졸 이상 학력, 40대 이상, 중산층 가구이며,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26.1만(102.9만명)으로 교육 빈곤층의 31.7%를 차지
- 이들(26.1만 가구)의 경우, 월평균 교육비가 105.3만원으로 소득 387.6만원의 27.2%, 소비지출 369.8만원의 28.5%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음

○ (소득 수준별) 교육 빈곤층의 대부분은 중산층에 해당하며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적자 상태에 놓인 중산층이 60.5만 가구에 달함

- 교육 빈곤층의 73.3%는 중산층에 해당
- 교육 빈곤층 82.4만 가구 중 73.3%인 60.5만 가구는 중산층이며, 고소득층은 21.5%인 17.7만 가구, 저소득층은 7.0%인 4.2만 가구로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

- 한편, 전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교육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7%로 같았지만 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는 고소득층이 가장 컸음
- 소득수준별 교육 빈곤층의 비중은 고소득층이 13.7%, 중산층 13.7%, 저소득층 6.8%이며, 평균 교육비는 고소득층이 154.9만원으로 중산층의 91.2만원 보다 63.7만원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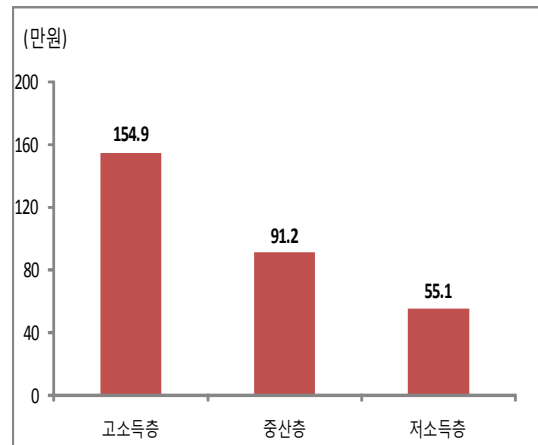
<교육 빈곤층의 소득수준별 구성>

(단위: 만 가구, %)

구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632.6 (100.0)	62.0 (9.8)	440.9 (69.7)	129.7 (20.5)
교육 빈곤층	82.4 (100.0)	4.2 (7.0)	60.5 (73.3)	17.7 (21.5)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기준이며, ()내는 비중임.

<소득수준별 월 평균 교육비>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평균 교육비는 '교육 빈곤층' 가구 기준.

○ (연령별) 교육 빈곤층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40~50대 가구주는 69.7만 가구로 84.5%를 차지

- 교육 빈곤층 중 가구주가 40대인 경우는 약 61%로 가장 높고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40대 가구의 약 15%에 해당됨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중 40대는 333.3만 가구로 전체의 5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데, 교육 빈곤층 중 40대도 50.3만 가구로 약 61.0%에 달함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에서 40대 교육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15.1%로 부채관련 지출이 있는 40대가 자녀 교육비도 줄이지 못해 취약화되고 있음
- 50대의 교육 빈곤층 비율은 17.7%로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음
- 교육 빈곤층 중 50대 가구주는 19.4만 가구로 23.5%, 30대도 10.9만 가구로 13.3%를 차지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50대 가구 중 교육 빈곤층은 17.7%로 40대의 15.1%에 비해 더 높고, 가구주가 30대 이하 가구의 6.6%도 유치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교육비 등으로 인해 적자 상태에 빠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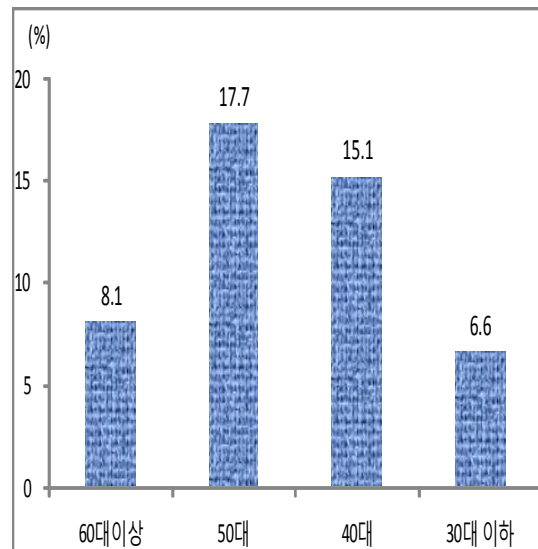
<교육 빈곤층의 연령별 비중>

(단위: 만가구,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교육 빈곤층
60대이상	23.0 (3.6)	1.9 (2.3)
50대	109.5 (17.3)	19.4 (23.5)
40대	333.3 (52.7)	50.3 (61.0)
30대 이하	166.8 (26.4)	10.9 (13.3)
합계	632.6 (100.0)	82.4 (100)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기준이며, ()내는 비중임.

<연령별 교육 빈곤층의 비중>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대비 비중임.

○ (학력별)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대졸 가구주의 12.2%가 교육 빈곤층으로 적자 상태임

- 교육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주의 대부분은 대졸 이상 또는 고졸 학력의 소유자임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임
 - 교육 빈곤층들 중에서도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가구가 40.5만 가구로 49.1%, 고졸은 37.4만 가구로 45.5%로 전체의 94.6%를 차지하고 있음
- 학력별 교육 빈곤층은 고졸이 가장 높았음
 - 학력별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에서 교육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졸 이상의 12.2%, 고졸은 14.8%, 중졸 이하에서는 9.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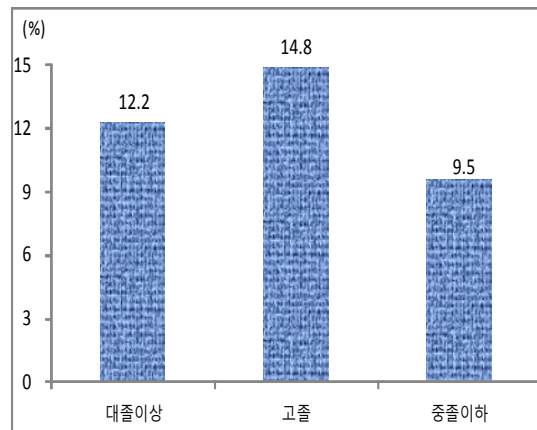
<교육 빈곤층의 학력별 비중>

(단위: 만 가구,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교육 빈곤층
대졸 이상	333.1 (52.6)	40.5 (49.1)
고졸	253.1 (40.0)	37.4 (45.4)
중졸이하	46.4 (7.3)	4.4 (5.3)
합계	632.6 (100.0)	82.4 (100.0)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11년 기준이며, ()내는 비중임.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이 포함됨.

<학력별 교육 빈곤층의 비중>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기준,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대비 비중임.

○ (종사상 지위별)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직군의 교육 빈곤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교육 빈곤층은 관리·전문가와 기능·장치·기계직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크지만, 종사상 지위별로는 단순노무와 서비스·판매직 등 취약 계층의 비중이 높음
- 교육 빈곤층 82.4만 가구 중 기능·장치·기계는 21.2만 가구, 관리자·전문가 군에는 18.8만 가구로 이 두 직군이 약 48.5% 차지
- 하지만, 종사상 지위별로 교육 빈곤층의 비중은 단순노무직이 15.5%, 서비스·판매직이 14.8%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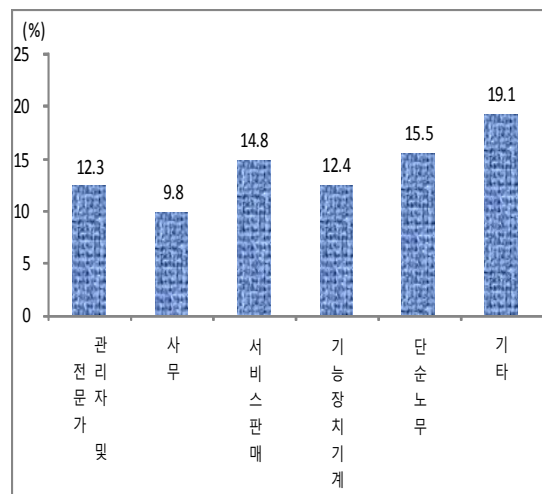
<교육 빈곤층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단위: 만가구, %)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교육 빈곤층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4.4 (24.4)	18.8 (22.9)
사무종사자	110.2 (17.4)	10.7 (13.0)
서비스·판매 종사자	102.3 (16.2)	15.1 (18.3)
기능·장치·기계	171.6 (27.1)	21.2 (25.7)
단순노무	41.9 (6.6)	6.5 (7.9)
기타	52.2 (8.3)	10.0 (12.1)
합계	632.6 (100.0)	82.4 (100.0)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기준이며, ()내는 비중임.

<종사상 지위별 교육 빈곤층의 비중>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기준임.

4. 시사점

- 국내 가구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이 지속되어야 하고, 아울러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의 전환 될 수 있는 체제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함
 - 초·중·고 과정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⁴⁾을 감안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사교육 필요성 자체를 줄여가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
 - 유치원~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도 높고, 30대부터 교육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도 많아 출발선에서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주요 과목의 전문 교사를 더 확충하고 예산을 더 배정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
 - 특히, 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을 보조교사로 폭넓게 활용한다면,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임
 -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학자금 용자도 지속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 가운데 민간의 부담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사교육비도 가구 소비지출의 약 14%(자녀 교육비 지출가구 평균)로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교육 재정의 확충이 필요
 -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직업 개발과정을 활성화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경력 개발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先취업, 後진학' 체계를 조기에 마련
 - 대학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도입된 마이스터高, 특성화高 로의 진학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학력사회가 아닌 능력사회로 전환하는 기초를 제공
 - 특히, 활성화되고 있는 고졸 취업자들의 경력을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직업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 또는 평생직업훈련체계를 조기에 정착 시켜나가야 함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kimmj@hri.co.kr)

4) 본문 5쪽의 '교육과정별 교육비 부담' 참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8월 17일	8월 2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83	1.68	-0.15%p
	엔/달러	81.19	80.66	77.66	79.32	78.59	-0.73¥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358	1.2542	0.0184\$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275	13,057	-218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163	9,178	1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93	2.88	-0.05%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4.3	1,130.5	-3.8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46.5	1,935.2	-11.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8월 17일	8월 2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6.03	95.99	-0.04\$
	Dubai	88.80	106.75	104.89	111.03	113.21	2.18\$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3.48	308.85	5.3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 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 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